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 희화화로서의 가능성

박윤희 · 손병용 (동국대)

I

중세 로맨스의 장르적 특성은 ‘무용과 예의가 출중한 기사가 고독한 모험의 여정을 통해 자기성찰을 이루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에서 시작한다.¹⁾ 이러한 주

1) 핀레이슨(John Finlayson)은 로맨스라는 장르를 그 주제에 따라 궁정식 로맨스와 모험의 로맨스라고 구분하면서 한두 가지 원칙으로는 설명이 힘들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난점에서도 불구하고 로맨스의 등장인물은 반드시 귀족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로맨스의 공통적 특징이 기사가 모험을 떠난다는 점에 있다고 얘기한다. 그는 영국에서 대부분 로맨스라고 불리는 장르의 작품들은 거의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영국 로맨스는 프랑스의 로맨스보다 적은 궁정 사랑과 보다 많은 기이한 사건, 기사, 괴물이 등장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프랑스의 로맨스인 무훈시(*chanson de geste*)와 영국의 로맨스는 귀족적 전사계급의 특징인 용기, 무기를 다루는 기술, 충성 그리고 관대함이라는 가치에서 유사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하지만 프랑스의 로맨스가 공적 맥락에서 영웅이 싸운다면, 영국의 로맨스는 개인적 이상의

인공 기사의 모험으로 이루어진 편력의 과정은 중세 로맨스의 본질적인 플롯을 구성하는 동시에 로맨스 독자들의 흥미를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소이다. 또한 중세 영국 로맨스의 등장인물들은 무소불위의 용맹으로 어떠한 시련도 반드시 이겨내는 초인간적인 존재로 전통적인 로맨스 독자들에게 각인되었다(Finlayson 443). 영웅적인 주인공 기사와 함께 중세 로맨스들은 용과 같은 괴물이나 마법이 빈번히 일어나는 주로 초자연적이면서도 기괴한 모험담을 담은 가상의 세계를 다루는데, 로맨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주로 기사들의 능력이나 명성을 시험하기 위해 부과되고 그것의 성취를 결말로 삼는다. 즉, 로맨스에서 특징적으로 다루어지는 초자연적이며 기괴한 요소들은 논리적인 설명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인 동시에 로맨스 독자들에게는 강렬한 흥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Everett 13; Bloomfield 106-107). 이러한 중세 로맨스의 외형적인 문학적 특징을 데이븐포트(W. A. Davenport)는 제프리 초서의 「토파즈 경」(*Sir Topaz*)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편력의 모험을 떠나는 기사, 사랑과 증오가 병존하는 요정 세계, 기사도적 동기의 양 극단을 보여주는 요정 신부와 거인. 이외 주인공 기사의 무장, 그의 외모와 미덕, 자연 경관, 축제, 모험과 우연의 분위기, 그리고 다른 로맨스에 대한 암시 등 부차적인 특징들은 관용적인 표현을 유형화함으로써 「토파즈 경」 이야기를 특징짓는다. (94)

데이븐포트의 설명처럼 중세 로맨스 장르를 희화화(burlesque)한 「토파즈 경」은 이 장르의 모든 특징들을 단순화시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초서의 「토파즈 경」이 노골적으로 중세 로맨스 장르를 희화화시켰다면, 1864년에 필사본이 인쇄되어 세상에 소개된 이래 오늘날 대표적인 중세 로맨스 작품으로 자리 잡은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는 ‘중세 로맨스의 꽃’

추구의 관점에서 싸운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즉, 핀레이슨의 일반적인 로맨스에 대한 견해는 기사가 혼자 말을 타고 모험하는 이야기이고, 가장 중심에는 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Definition” 429-445).

이라 할 수 있는 아씨 왕의 전설을 은연중에 탈신비화 시킴으로써 이 장르를 간접적으로 회화화시키고 있다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가웨인 경』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이고 기괴한 사건의 본질이 독자에게 가웨인(그리고 아씨 왕의 궁정)을 초인적인 영웅이 아닌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로맨스는 필연적으로 로맨스라는 장르의 회화화를 불러 일으켰으리라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II

『가웨인 경』에 대한 평가는 내용과 형식의 난해함을 두고 논의가 벌어지더라도 항상 로맨스라는 장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험의 로맨스, 예절의 로맨스, 연대기적 로맨스, 종교적 로맨스가 혼재함으로써 독자들의 기대감을 좌절시키는 작품(Finlayson, “Expectation” 23-24), 민담(folk-tale)과 로맨스적 요소의 적절한 결합으로 독자에게 상반된 기대감을 부여한 작품(Barron 230), 그리고 12세기의 이상적인 기사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14세기의 로맨스 문학 쇠퇴기에 쓰여진 작품이라는 주장(Ganim 377) 등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러한 비평적 평가에서 벗어나 『가웨인 경』은 당시로서는 ‘특이한’ 로맨스로서 여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양식과 스타일에 의해 형성된 중세 로맨스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황당무계한 모험의 세계가 상당히 절제되어 표출되거나 신비로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로맨스의 걸 무늬만을 입힌 새로운 유형의 작품으로 판명되기 때문이다. 즉, 중세 로맨스의 주된 요소인 비사실적인 기사의 모험이 단지 11행으로 축약되어 있음을 독자는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로맨스의 모험을 구성하는 기사의 용맹스러운 무용담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특히 서두의 ‘목 베기 게임’(beheading game)에서 잔뜩 부풀려놓은 기대감—은 작품이 진행될수록 여지없이 좌절되게 된다.

용맹한 기사가 지나간 물가나 개울에서
 그가 괴물과 같은 적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는 아주 사납고 무서운 적들을 상대로 싸워야만 했다.
 내 능력이 부족하여, 그가 돌아다니며 경험한 많은 경이로운 일들에 대해
 단지 그 십분의 일도 말하지 못할 따름이다.
 그가 싸웠던 뱀들, 사나운 늑대들,
 암벽에서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숲 속의 야만인들,
 황소와 곰들, 그 외에 사나운 멧돼지들,
 틈니 같은 절벽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껄이며 뛰쳐나온 거인들.
 그가 용감하지 않고 신의 편에 서지 않았더라면,
 그는 많은 불운과 치명적인 해악을 당했으리라. (715-725)²⁾

이와 같이 『가웨인 경』에서는 대부분의 로맨스와는 달리 편력의 모험 중에 겪게 되는 주인공 가웨인의 황당무계한 모험이 거의 대부분 생략,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이 11행 속에서 ‘가웨인 시인’은 다른 로맨스에서는 장황하게 묘사되었을 주인공의 모험과 무용의 주된 요소들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길을 떠나기 전 가웨인의 무장장면에 대해 일백 행이 넘는 묘사를 한 것과 대조적으로 시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변명과 함께 그러한 위험한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간략하게 언급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맨스의 모험을 구성하는 초자연적인 적들을 상대하는 기사의 용맹스러운 무용담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는 좌절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중세 로맨스에서 보여지지 않는 어린 나이의 미숙함을 나타내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아씨왕과 가웨인을 포함한 그의 기사들을 다룬다.

이는 곧 초기 로맨스인 『덴마크인 해브록』(*Havelok de Dane*)이나 『혼 왕』(*King Horn*)에 등장하던 이교도인 사라센과 괴물 또는 악한 무리(*Paynim*)와 불가사의한 존재들과의 싸움 같은 요소들은 『가웨인 경』에서는 플롯구성상 기본

2)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에서의 모든 인용은 Marie Borroff, trans.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 New Verse Translation* (New York: Norton, 1967)에 의거하며, 이하 『가웨인 경』으로 표기함.

적인 것으로 자리할 뿐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아름다운 여인(Rimenild)이 혼 왕에게 사랑의 힘을 보내어 영웅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다던지 초서의 『기사 이야기』에서 에밀리를 처음 본 순간의 팔라몬과 아르시테의 가슴 찢리는 감정(1080)과 같이 큐피드의 화살이 관통하는 진지한 궁정식 사랑(courtly love)은 부재한다. 이러한 로맨스 요소의 축약과 ‘변죽’을 통하여 시인은 ‘비판적’ 독자들로 하여금 중세 로맨스 문학의 ‘회화화’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가웨인 경』의 서두에서 잘려진 목이 말하는 등 놀라운 미술과 사건을 접한 독자들은 결국 일종의 해프닝과도 같이 끝나는 ‘신비로운 사건’의 놀랍지만 싱거운 반전에 대한 가웨인의 당혹스러움을 함께 하려하지만 초자연적이고 기괴한 사건의 이면에는 인간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와 같은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즉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시인은 작품의 주제—가웨인의 인간적인 깨달음—를 위해 여러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정통 로맨스의 걸음을 입히고 나아가 서서히 이를 제거함으로써 중세 로맨스의 새로운 ‘변죽’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III

『가웨인 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테스트를 통하여 아씨왕과 그의 원탁의 기사들의 실체를 드러낸다. 하나는 ‘목 베기 게임’의 시험을 통하여 아씨왕 궁정 전체의 실체를, 다른 하나는 편력의 여정 중에 여러 시험을 통하여 ‘기사도의 꽃’이라고 칭송받는 가웨인의 실체를 가감 없이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써 『가웨인 경』은 그 동안 자신들의 실체가 가려진 채 소위 무소불위의 영웅으로서 존재해 왔던 이상화된 문학적 영역이 더 이상 신비롭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신비화와 이상화를 통하여 이들 존재의 실체를 감추었던 중세 로맨스를 궁극적으로 회화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아씨왕 궁정의 위상은 크리스마스 날 갑자기 등장한 녹색기사와 그가 제안한 목베기 게임으로 인하여 여지없이 무너진다. 즉, 여타 로맨스에서는 이상화된 세계로 미화된 아씨왕의 궁정이 실상은 살과 피를 가진 평범한 인간들의 현실세계와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카멜롯성에서 벌어지는 성탄절과 신년의 흥겨운 축제는 여느 화려한 궁정의 모습이지만, 갑작스러운 녹색기사의 출현은 일상적인 축제와 대비하여 충격적인 효과를 독자에게 부여한다. 아씨왕이(그리고 독자들이) 기대하던 신비로운 모험의 세계가 이 녹색기사의 출현으로 충족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또한 “목 베기 게임”을 통해 실제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 중세 로맨스적인 환상의 체험은 이로써 끝나게 되며 따라서 서두에서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독자들의 심화된 기대감은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좌절만 거듭하게 된다.

모든 것이 풍부한 색채로 번쩍이는 축제분위기를 지적하면서, 개님(John Ganim)은 유명한 아씨 왕과 그의 기사들이 축제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에 반하여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과 용기는 이 시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논한다. “시인은 아씨의 기사들을 그들의 군사적인 성취보다는 사회적 고상함에 관하여 묘사한다. 훌륭한 기사는 이 두 분야에서 출중하여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는 보고 있으나 다른 하나는 들을 뿐이다”(379). 개님이 지적한대로 이 시는 로맨스의 주제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던 아씨 왕과 원탁의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기사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이야기 전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시인은 세련된 태도와 무용담이 전개되는 이상화된 궁정을 나타내지만 아씨 왕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기대했던 왕으로서의 위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축제의 즐거움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약간은 어린 티가 나는, 아씨의 군주다운 가슴은 기쁨과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는 생기 넘치는 삶을 좋아하여 좀처럼
오래 눕거나 앉아 있질 못했고,
그의 젊은 피는 너무나 왕성하였으며 그의 머리는 너무나 들떠있었다. (86-89)

시인은 처음에 아씨의 예의에 대한 경의를 “아씨는 가장 예의바른 인물로 여겨졌다”(King Arthur was counted most courteous of all; 26)와 같이 표현했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약간 어린 티가 나는”(86)이라고도 묘사한다. 다른 아씨 왕 류의 로맨스 작품들과 같이 이 시에서도 아씨는 카멜롯의 대표이지만 『가웨인 경』에 묘사된 그의 모습은 보로프(Marie Borroff)가 지적했듯이 용기와 관대함 그리고 선함을 지닌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것이다(“Style” 65). 이렇게 축제분위기에 젖어 있던 아씨의 궁정은 온통 녹색으로 치장한, 로맨스 장르에서 흔히 보이는 전형적인 이방인의 들연한 침입으로 혼란을 맞게 되며 결국 아씨의 기사들 또한 축제의 분위기에 들떠 있다가 무시무시한 이방인의 등장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느 평범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노출시킨다.

대단한 놀라움이 축제장에 생겨났다,
기이한 그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과 행장 모두가
죄다 녹색이었다. (147-150)

이러한 초자연적인 존재의 등장은 로맨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 도전자는 단순히 무지막지한 악당이 아니다. 한 손에는 평화의 상징인 “호랑가시나무 가지”(206)를 들고 다른 손에는 큰 도끼를 들고 나타난 온몸이 녹색인 이 신비의 기사는 비록 기괴한 모습이지만 “가장 고상하고”(seemliest; 142), “잘 어울리는”(fair accord; 146) 세련된 기사의 차림으로 등장하고 있기에 궁정 안의 사람들을 충분히 경이롭게 만든다. 지나치게 섬세하고 귀족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하게 묘사된 초자연적인 녹색기사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축제의 분위기는 중단되며 시끌벅적했던 궁정은 이제 두려움에 쌓인 채 침묵으로 가득하다.

그들 대부분은 그 존재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품었다,
기수와 말이 그러한 색을 가졌었기에,

.....

그리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도깨비와 요정으로 생각했다,

.....

모두 다 잠에 취한 듯,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의 때문이었다

그들의 수장이 먼저

말을 해야 하기에. (233-249)

아씨의 기사들은 녹색기사를 유명이나 요정으로 생각하면서도 이 신비의 인물이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평화와 우정을 상징하는 호랑가시나무의 의미보다는 녹색기사의 도전자적 이미지와 그가 들고 있던 도끼의 이미지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그들은 녹색기사가 들고 있던 도끼와 그의 기괴한 초자연적인 모습에 너무 놀라서 녹색기사를 적의를 품은 위험한 도전자로 인식하지만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왕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을 따름이라고 참고의 말을 붙인다. 즉, 신하된 도리로서 자신들의 왕이 먼저 도전자를 상대로 말을 건네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녹색기사에 대한 질은 두려움이 온 성안에 질게 드리워 있음을 은연중에 밝히는 말이다.

녹색기사는 아씨의 명성뿐만 아니라 그의 기사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카멜롯에 왔다고 밝히면서도 그 명성과 소문에 대해서 도전적인 의구심을 표시한다. 이는 아씨를 위시한 기사들이 자신의 도전에 선뜻 나서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군주에 대한 예의 때문이라고 굳이 설명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녹색기사는 비겁함으로 인식하며, 독자들은 녹색기사를 통하여 이 작품에 재현되는 아씨와 원탁의 기사들이 비로소 회로애락의 감정을 지닌 살아있는 인간임을 느끼게 된다. 겁에 질린 듯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기사들을 거만한 태도로 천천히 둘러보는 녹색기사는 마침내 자신이 결투가 아닌 게임을 하러 온 것임을 밝힌다. 성탄절 축제에 불쑥 나타난 녹색거인이 ‘황당무계’한 목 베기 게임을 제의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무장을 하고 올 경우 자신의 힘에 대항하기에는 궁

정의 기사들의 힘은 미미할 뿐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험이 미천한 “수염도 나지 않은 애송이들”로 치부해 버린다.

“내가 제안하는 게임을 흔쾌히 허락하여 주기 바라오”

.....

“난 전혀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요;
여기에 있는 자들은 수염도 나지 않은 애송이들이라오
내가 완전 무장을 하고 왔더라면,
그들은 한 주먹 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오” (273-282)

녹색거인과 같은 이방인이 전통적인 로맨스에서는 궁정의 안위를 위협하며 싸움을 일으키던 것과 달리 『가웨인 경』에서는 축제에 어울리는 게임을 제안한 것이다. 녹색기사는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 “수염도 나지 않은 애송이들”과는 처음부터 싸움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아씨와 그의 기사들의 모습과 녹색기사의 모습을 병치시킴으로써 독자들의 전통적인 로맨스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기대감—용맹하고 예절바른 원탁의 기사와 이교도적이며 악마와 같은 괴물의 이분법적인 병치에 대한 기대감—을 좌절시킨다. 오히려 시인은 이들의 모습을 전통과는 상반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을 더욱 혼란과 기대에 빠뜨리는 것이다.

왕의 목 베기 게임을 대신하기 위해 나서는 가웨인은 상당한 예의와 신의를 갖춘 모습으로 등장한다(339-361). 휘팅(B. J. Whiting)과 버스비(Keith Busby)는 『가웨인 경』이전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가웨인이 조연의 역할로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며 그의 명성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완벽한 기사로서의 무용과 예의를 지닌 기사도와 궁정식 연인의 모습이었다고 묘사하고 있다(Whiting 203-208; Busby 386-387). 물론 이와 같이 가웨인이 아씨를 대신하여 목 베기 게임에 나서는 것은 녹색기사의 조롱에 의해 손상되었던 궁정의 명예를 되찾고 또한 예의와 충성이라는 주군에 대한 가웨인의 기사도적인 의무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웨인이 아씨를 대신하여 목 베기 게임에 나

서는 진정한 이유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와의 목 베기 게임은 인간으로서
는 이길 수 없는 게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즉, 가웨인은 자신의 목숨을 주군의
그것과 바꾸려는 의도에서 이 게임에 ‘주체넘게’ 나서는 것이다.

게임을 하기에 앞서 아씨는 가웨인에게 그가 먼저 녹색기사의 목을 친다는
사항만 확실히 해 두면 뒤따르는 공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왕이 말하길, “사촌이여, 명심하시게. 오늘 그대가 자른 것은,
그것을 제대로 다룬다면, 그러면 손쉽게,
다음에 있을 도끼질을 건뎌낼 수 있을 걸세.” (372-374)

이 말은 곧 먼저 그 괴물의 목을 제대로 친다면 그가 확실히 죽을 것이고 따라서
그가 죽게 되면 이 게임은 끝나게 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아씨 왕은 순간적인 흥분으로 녹색기사의 목 베기라는 도전에 응하려 하였
으나 가웨인의 청원에 곧 냉정함을 되찾았고 그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가웨인의
타격에 떨어져나간 목을 들고 녹색기사가 아씨의 궁정을 떠날 때 아씨 왕은 이
일을 그저 크리스마스 축제에 알맞은 하나의 시합으로 치부하면서 귀네비어
(Guinevere)를 위로할 만큼 정신을 되찾게 된다. 하지만 그는 이미 녹색기사의
초자연적이고 마술과도 같은 이미지에 상당히 놀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귀한 태생의 아씨는 진정 놀라고 있었으나,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우렁차게 말했다
아름다운 왕비에게, 예의 바른 말투로,
“부인, 오늘과 같은 일에 조금도 놀라지 마오;
이런 일은 크리스마스에 흔히 일어나는 놀이라고요.” (467-471)

놀란 마음을 감추면서 왕비를 안심시키는 아씨의 모습은 무시무시한 목 베기 게
임에 놀란 마음과 왕으로서의 체통을 지키려 하는 모습과 병치된다. 이러한 상황
에서 목 베기 게임을 단순한 놀이라고 말하면서 축제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아

씨의 발언은 왕으로서의 체통을 의식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단지 놀이와 축제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극히 단순하며 유아적인 젊은 아씨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게임이 끝난 후 아씨는 녹색기사의 목을 자른 도끼를 걸어놓도록 가웨인에게 명한다. 일 년 후의 목 베기를 상징하는 이 도끼를 연단 위에 걸어두어 다가올 목 베기의 약속을 상기시키고와 함께 녹색기사가 물러남에 따라 전리품으로서 걸어두는 것이다. “자, 가웨인 경, 목을 만족스럽게 자른 경의 도끼를 걸어두시오”(Now, sir, hand up your ax, that has hewn enough; 477)라는 표현을 클레인(Wendy Clein)은 녹색기사의 절단된 머리와 함께 연단 위에 걸려진 거대한 도끼가 가웨인이 당해야 할 죽음에 대한 경고의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84-85).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나중에 생각하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이 같은 말에는 축제의 분위기로 돌아가자는 아씨의 의도가 나타난다.

녹색기사가 물러가고 카멜롯에 다시금 축제의 분위기가 찾아올 때 시인은 가웨인이 직면한 목 베기의 모험이 단순한 게임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가웨인 경이여, 부디 유념하기를, 두려움에 위축되지 말도록”(Now take care, Sir Gawain, / That your courage wax not cold; 487-488)라고 말하면서 시인은 녹색사원에서 있을 이차 목 베기의 상황에서 가웨인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문한다. 이는 초인간적인 불굴의 용기를 자랑하는 가웨인 역시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임을 염두에 둔 말이다. 녹색기사가 떠난 후 아씨와 그의 궁정은 다시금 축제 분위기에 즐거워하고 있지만, 인간세계를 지배하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순식간에 돌아감을 시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술을 마신 후 즐거웠지만,
 일년은 빨리 지나가고 새로워졌다.
 처음의 것과 나중 것은 서로 거의 같은 경우가 없다. (497-499)

이는 곧 완벽한 기사로 여겨지는 가웨인 자신도 한 인간으로서 변덕이 지배하는

이 지상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인의 “처음과 끝이 좀처럼 같을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카멜롯에서 가웨인과 아씨, 그리고 기사들이 겪었던 녹색기사의 목 베기 때에 보여준 모습과는 다른 면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왕을 대신하여 목 베기 게임에 나섬으로써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먼 순례의 길을 떠나는 가웨인에 대한 동료기사들의 반응은 단지 적나라한 인간들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궁정에서 가웨인이 모험을 위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얘기하는 기사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떠나는 가웨인에게 연민과 동료애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왕과 가웨인이 성급했음을 지적한다.

그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도끼의 일격을 받아 온몸이 부스러지는 것보다는,
 공허한 자만심 때문에 요정에 의해 목이 잘리는 것보다는!
 왕이 그렇게 얘기해줄지 누가 알았겠어,
 크리스마스 게임에서 그의 기사를 위협에 빠뜨릴 줄이야? (679-683)

왕의 행동이 빚어낸 결과지만 가웨인이 최후로 선택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자만심은 가웨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왕의 무모함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가웨인이 자발적으로 나섰던 것은 아씨 왕이 목 베기 시합의 상대로 결정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신이 대신 응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용기는 여타 영웅적인 로맨스에서는 가히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가웨인의 선부른 만용과 어리석음, 그리고 왕의 방관에 대한 은근한 조소가 동료기사들의 언사에 배어있을 뿐이다.

가웨인은 녹색기사와 목 베기 게임에 대한 약속을 함으로써 모험의 편력을 시작하게 된다. 모든 기사들이 머뭇거릴 때 가웨인이 아씨를 대신하여 게임에 나서는 모습은 그를 충성스러운 기사도의 소유자로 독자들이 인식하게 하지만 그 약속에 따른 죽음의 공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의 심리상태에 각인되어 나타

난다. 또한, 아씨는 축제분위기의 즐거움과 왕으로서의 위엄 사이를 배회하고 있다. 주변기사들은 자신들은 녹색기사의 도전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단지 가웨인과 아씨의 행동에 대한 방관자적인 조소를 보였을 뿐이다.

IV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가웨인의 편력은 전형적인 모험 로맨스의 장면인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는 외로이 길을 가고 있다”(Far off from all his friends, forlorn must he ride; 714)로 시작함으로써 독자들의 모험에의 기대를 부추긴다. 하지만 황당무계한 전투와 모험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를 시인은 단지 11행의 간략한 설명으로 대체하고 이성의 영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요소에 대한 독자의 기대지평은 이후 등장하는 훗데저트 성과 녹색거들의 평범한 결과로 인해 또 한 번 좌절된다. 즉 신비함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바로 그 핵심의 자리에 일상적인 것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일차 “목 베기 게임”이 끝난 후 자신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녹색기사의 확인은 가웨인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완곡한 표현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가웨인을 기다리는 운명에 보다 더한 흥미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녹색기사가 매일 미사를 올리는 예의바른 기사인 버실락 성주(Bercilak)로 밝혀지고 녹색사원 또한 평범한 언덕으로 밝혀지면서 신비로운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던 장소와 인물, 그리고 가웨인이 겪었던 그 모든 시험과 공포를 초자연적인 것과 연결지었던 독자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결국 녹색기사가 자신의 정체와 모간 르 페이(Morgan le Fay)가 귀네비어를 놀라 나자빠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의 추이에 깊은 흥미를 보였던 독자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신비함의 자리를 일상적인 것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녹색으로 변한 버실락이건 녹색기사가 인간으로 바뀌었던지 간에 녹색기사

의 존재로 이 시에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변신과 목 베기에서의 생존은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로맨스의 분별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간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녹색기사와 달리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훗데저트 성의 갑작스런 출현과 거들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로맨스에서의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비이성적으로 출몰하는 것에 반해 이 두 가지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³⁾.

모험도중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차가운 날씨에 고통 받고 있던 가웨인이 휴식도 취하면서 성탄절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기도하자 성이 갑자기 나타난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성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고 신비한 요정의 성일 것이라고 암시되었던 그 곳이 결국은 실제 세계에서 가웨인이 인간적인 시험을 받는 장소로 드러나게 된다. 언급되지도 않던 성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 장면의 수사적인 구조는 세 가지의 가설을 가능하게 만든다.

독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설명은 말을 타고서 숲 속을 다닐 때 몇 야드 앞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적인 설명은 성의 나타남은 가웨인의 기도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응답이라는 것이다. 초자연적이고 기괴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천일야화』(*Arabian Nights*)의 이야기에서처럼 소망한 성이 나타나거나 지어지는 것이다. (Cooper 290)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이 세 가지 가능한 가설 중에서 결국 첫 번째 것만이 정당임을 독자들은 깨닫는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설이 제시했던 것과 같은 정체불명의 성에 대한 독자들의 모든 예측과 상상은 심한 좌절과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한낱 환상으로 결말짓게 된다.

아울러 가웨인의 기사도 정신은 또 다른 모험의 장소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훗데저트성에 도착하면서 서서히 퇴색되기 시작한다. 가웨인의 기사도

3) 블룸필드는 신비로운 요소(*the marvelous*)가 로맨스의 비이성적인 성질을 강화하기에 영웅의 행동에 부여된 이유는 독자들이 이유라고 인식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106-107).

는 이제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교환과 유혹에 의해 시험 당하기 때문이다. 가웨인은 기사적인 예의에 따라 버실락과 약속을 하는데 이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마치 카멜롯에서 아씨가 녹색기사와 즉흥적으로 목 베기 게임을하기로 한 것과 같이 그는 버실락이 제안하는 게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버실락과 약속을 하게 된다. 마치 가웨인이 훗데저트에서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는 버로우(Burrow)의 견해와 같이, 가웨인은 상대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이를 수락한다(60). 목 베기라는 목숨을 건 게임에 비한다면 너무나 가벼운 약속으로 생각한 나머지 가웨인은 자신을 응송하게 대접하는 성주의 호의에 단순히 예의로서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벤슨(Larry D. Benson)은 가웨인이 직면한 또 하나의 게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충성스러운 기사는 그 이상에 충실할 뿐 아니라 주인이건 군주이건 그가 맹세한 말, 그가 한 계약을 충실히 따르는 기사이다. 가웨인이 가장 진실한 기사로 남기 위해서 반드시 충실해야 할 것은 계약상의 의무이다. 가웨인이 자신의 맹세에 진실한 모습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그는 계약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227)

가웨인은 자신에게 상당히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은 그의 명예에 결점이 없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게임인 것이다. 그는 본격적으로 유혹이라는 시험에 들어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기사도가 시험 당하는 시련을 경험하게 된다.

가웨인은 버실락 부인(Lady Bercilak)의 유혹이 목 베기 게임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그녀에 의해 관능적인 유혹을 경험하게 된다. 핀레이슨은 이러한 부인의 유혹을 가웨인의 예의에 “성적 교제의 예의(sexual social manners)를 넣는 것”이라고 지적한다(“Expectation” 16). 부인은 가웨인의 예의를 그녀의 목적을 위해 성적인 요소로 변질시켜서 그의 정절을 공격한다.

즉, 부인은 가웨인의 예의를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적인 의미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버실락 부인의 유혹은 유혹하는 요부로서의 확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Burrow 80). 하지만 가웨인은 버실락 부인에게 자신의 예의를 다해 야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유혹을 거부해야만 한다.

이 작품에서 사랑이 기쁨 있거나 기사적인 미덕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에버렛(Dorothy Everett)이 밝히듯이(14), 여타 로맨스에서 나타나는 기사와 귀부인 사이의 순수한 궁정식 사랑이 『가웨인 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 궁정식 사랑에 등장하는 귀부인은 기사들에게 있어 성적인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그들의 기사도적 행위를 고취시키고 궁정의 화려함을 돋보이도록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여성은 승배의 대상이 되고 남성은 그녀의 종으로서 충성하며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기사도의 이상을 충실하게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면에 『가웨인 경』에 나타나는 궁정식 사랑은 ‘유혹’을 밑바탕에 두며 결국 가웨인이 직면한 비공식적인 제 삼의 게임은 바로 부인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이다.

부인의 육체적인 유혹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귀부인에 대한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가웨인의 모습은 중세의 독자들에게 익히 알려진 대로 궁정식 연인으로서의 명성을 독자에게 상기시킨다. 동시에 그가 자신의 기사도적인 이상에서 나타나는 충성과 예의, 그리고 정절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가웨인은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그러나 그녀의 접근에 도의상 응대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비록 계획이 잘못 될 수 있을지라도. (1661-1663)

물리치기 어려운 부인의 육체적인 유혹과 기사로서의 정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는 갈등에서 그는 고민하는 것이다. 가웨인은 버실락과의 약속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함과 동시에 버실락 부인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의 도덕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⁴⁾ 가웨인이 직면하고 있는 죄는 성주 부인의 육체적인 유혹을 받아들이는 죄일 수도 있고, 혹은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일 경우 성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죄 일수도 있다. 이럴 경우 그러한 죄는 연쇄적으로 가웨인의 정절과 성주와 행한 계약 그리고 그에 따른 신의를 동시에 배반하는 죄와 연결된다. 또한 주인공이 정절과 신의를 지키려고 할 경우, 귀부인에 대한 예의범절의 표상으로 성주 부인에 대한 불경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를 어기지 않고는 다른 것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성적 유혹을 거절해야함과 동시에 예의를 지켜야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부인의 유혹은 펜타글(Pentangle)의 다섯 가지 덕목⁵⁾ 중에 정절과 예의 그리고 동료애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사도적인 덕목 내의 갈등에서 부인은 사랑의 징표로서 녹색 거들(green girdle)을 받아줄 것을 부탁한다. 그가 이 거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유혹을 제지시켜 정절을 지킬 수 있으며 또한 기사로서의 예의도 지키게 된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다. 그러나 거들의 존재를 버실락에게 알리지 말아야 하는 부인과의 약속은 또 다른 어려움을 낳는다. 그것은 부인에 대한 약속과 버실락에

- 4) 도로써 에버렛은 “가웨인이 부인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례(discourtesy)와 순종(compliance) 사이의 아슬아슬한 그의 감정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지켜야하는 기사도가 서로 모순되는 점을 독자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16).
- 5) 가웨인의 방패의 문양인 펜타글에는 “다섯 겹의 형태로 된 다섯 가지의 요소”(632)를 가지고 있다. 앞면은 진실과 영원함의 징표이자 이상적인 기사도의 상징인 펜타글이 있고 뒷면은 성모 마리아가 그려진 방패를 갖추고 떠나는 가웨인은 비길 데 없는 진실함과 기독교의 신앙을 소유한 기사로 독자에게 인식된다. 그린(Richard Hamilton Green)은 방패에 새겨진 펜타글의 상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감과 다섯 손가락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은 가웨인의 타고난 완벽함을 의미한다. 즉, 신체에 이상이 없어서 용맹스러운 무예에 능하며 죄악에 빠지기 쉬운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식견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다섯 군데의 상처를 믿고 성모의 다섯 가지 기쁨으로부터 용기를 얻는다는 것은 신앙심과 소망이라는 신화적인 덕목을 의미한다(186-188). 이는 신에 의한 구원의 신념과 희망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그의 기사적인 덕목을 나타낸다.

대한 신의 중 하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부인의 유혹은 기사도 덕목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독자에게 제시하며, 그 중 하나가 시험 당한다는 것은 다른 덕목들도 또한 시험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예의와 펜탕글의 상징적인 기사도를 소유한 것으로 여겨졌던 가웨인의 정체성은 전면적으로 시험 당하게 된다.

신비의 성과 함께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녹색겨드랑이들이다. 성주의 부인은 가웨인이 거들을 몸에 지니면 절대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권유한다.

이 실크 조각을 가지는 이는
 그가 몸에 띠로 둘러 지니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를 쓰러뜨릴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기술로도 그를 죽일 수 없다. (1851-1854)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두 번의 유혹을 잘 물리쳤던 가웨인은 결국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이 세 번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거들을 받게 된다. 가웨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들을 받아들이며, 거들을 지니는 순간부터 가웨인의 의식을 지배하던 죽음을 초월하는 용기의 기사도 덕목은 사라진다.⁶⁾ 즉, 기독교 기사의 본보기로서 예증되었던 기사가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펜탕글이 상징하는 기사도적인 이상의 보호에서 거들이 나타내는 마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상적인 기사로서 가웨인이 범한 더 큰 잘못은 버실락과 맺은 교환의 약속을 파기함에 있다. 거들의 존재에 대해 버실락에게 숨겨야 함은 기사도의 전체적인 상징인 진실성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

6) 클레인(Wendy Clein)은 기사도에 따르면 가웨인은 죽음에 개의치 않고 죽음에서 명예를 얻어야 했고 그의 기독교적인 기사도에 따라 죽음으로서 기사는 불완벽에서 완벽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55).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보다 가웨인은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독자에게 나타난다.

해 블랑쉬(Robert Blanch)는 가웨인이 버실락과 맺은 계약의 불이행과 기사도적인 불충의 죄를 동시에 범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3).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에 급급해서 버실락과 맺은 약속을 쉽게 포기함으로써 신의와 충성심을 손상시켰다는 비난에 앞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가웨인의 행동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그의 상황과 심리상태를 알고 있는 독자로서는 가웨인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된다. 화려하게 포장된 기사도적 이상의 이면에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욕구가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즉 가웨인이 거들을 받아들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생명보존에 대한 욕구에서이다.

그러나 결국 녹색사원에서 마법의 녹색거들이 평범한 거들로 판명됨으로써 기사가 신비로운 여인의 도움을 받아 ‘지고지난한 임무’(mission impossible)를 수행하게 된다는 로맨스의 초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독자의 기대감은 또 한 번 여지없이 무너진다. 『혼 왕』에서 혼 왕이 반지를 건네 준 연인을 생각하면서 적과의 전투를 이기게 해주는 반지의 마술을 사용할 수 있었듯이 여타 중세 로맨스에서 주인공은 여주인공으로부터 마술적인 도움을 받는데 이는 주로 귀절이나 거들과 같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었음(Friedman 309)에 익숙한 독자들의 기대는 녹색거들의 탈신비적 요소로 인해 좌절된다.

오히려 『가웨인 경』에서 거들은 기사도의 이상과 인간의 본성사이의 간극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거들은 불사의 부적으로 독자들에게 연상되지만 그 어떠한 초인적인 영웅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상징물인 것이다. 가웨인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은 거들을 받기 전후에 보여주는 그의 심리 상태에 의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 깊은 꿈속에서 그는 음울하게 중얼거린다, / 울부짖는 사람처럼, 무시무시한 생각에 사로잡혀, / 그를 파멸로 이르게 할 숙명의 그 날, / 그가 녹색사원의 무시무시한 주인을 만날 때 / 그의 목 베기에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모든 다름을 마쳐야만 한다. (1750-54)

[후] 그는 주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 그 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 전에는 그에게서 결코 볼 수 없었다고 / 그토록 정중하고 그토록 쾌활한 모습
을. (1889-92)

특히 운명의 전날 밤 잠을 곤하게 잤다(1991)는 사실, 그리고 그 날 아침 행장을 차릴 때 부인이 준 거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2030-31)는 사실은 거들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인간적인 모습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버로우(Burrow)를 비롯한 많은 비평가들은 가웨인이 더 이상 성모 마리아의 기사가 아니라 마력(black magic)을 지닌, 세속화된 기사도의 정표로서 거들에 의지하게 되는 나약한 기사로 타락했다고 그를 비난한다.⁷⁾ 그러나 가웨인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 거들을 받았다는 시인의 언급(2039-2042)은 그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이는 그가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잘못된 뿐임을 나타낸다.

가웨인은 훗데저트성에서 세번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또 다시 세 번의 도끼질을 녹색사원에서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독자는 죽음 앞에 선 가웨인의 인간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 불굴의 가웨인도 목 베기를 당할 때 누구나 보이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첫 번째 목 베기를 당하는 장면은 녹색기사의 도끼날 앞에서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을 하는 가웨인을 보여준다.

거대한 도끼에 가웨인은 옆을 힐끗 보았다
죽음을 초래할 그 도끼가 내려치려는 순간,
날카로운 도끼에 그의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자.
그 근골이 장대한 이가 갑자기 도끼질을 멈추었다. (2265-2268)

7) 하워드(Donald R. Howard)는 가웨인이 카멜롯을 떠날 때는 '이상적인 기독교 기사'(ideal Christian knight)의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 때문에 받은 녹색 거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기품과 기사도의 이상을 모두 저버린다고 본다(430).

이와 같은 가웨인의 행동은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데,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아름다운 갑옷과 펜타글이 새겨진 방패는 무용지물이 되고, 그는 무적의 거들을 착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다가올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는 것이다. “넌 그 빛나는 가웨인이 아니로구나”(You are not Gawain the glorious; 2270)라는 말에 가웨인은 다시금 용기를 내어 두 번째 도끼질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녹색기사의 호통을 들은 후 자신의 숙명을 굳게 받아들이고서 기사도의 규율과 같이 죽음 앞에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가웨인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다시금 도끼질하는 시늉만 내고 멈추는 녹색기사를 향해 다음과 같이 화를 낸다.

그러자 가웨인은 분노에 사로잡혀 험악하게 말했다
 “왜 내려치지 않느냐, 이제는 너의 위협에 지쳤다;
 네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너 자신이 놀라게 될 것이다.” (2299-2301)

여기서 독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가웨인의 무례한 말투를 듣게 된다. 어떠한 난관에서도 기사도의 예의에 정통한 모습으로 제시되었던 가웨인이 교양 있는 예의가 아닌 인간적인 감정으로서 녹색기사를 향해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기사는 가웨인이 이제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도끼질을 거행한다. 하지만 가웨인을 죽일 수도 있었던 녹색기사는 약간의 상처만을 내고 만다.

녹색기사는 도끼를 힘껏 내려쳤지만 가웨인은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다
 피부를 베어서 살점이 약간 떨어져 나간 것을 제외하고는;
 도끼의 가장자리가 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약간의 피가 가볍게 땅 위로 흘렀다.
 하얀 눈 위에 자신의 선명한 핏자국을 보았을 때,
 가웨인은 용수철처럼 튀듯이 벌떡 일어서서,
 자신의 멋진 투구를 잡아 머리에 쓰고는,
 등 뒤에 있던 방패를 어깨 앞으로 놓은 후,

자신의 칼을 빼들고는 대담하게 말했다. (2311-2319)

눈 위에 선명한 핏자국에 대해 호프만(Elizabeth Hoffman)은 떨어진 핏자국이 붉게 빛나는 펜탕글과 연관되어 펜탕글의 영원한 매듭과 같은 기사도의 덕목이 더 이상 영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붉은 펜탕글의 다섯 꼭짓점의 매듭이 가웨인의 상징으로서 (다섯 덕목 중에서 하나의 손실도 있을 수 없는) 붕괴되었음을 나타내며 눈 위에 떨어진 붉은 피는 너무나 쉽게 부서지는 펜탕글의 다섯 덕목인 것이다(80). 즉, 펜탕글의 다섯 가지 덕목의 전체적인 상징인 진실을 가웨인이 어김으로 해서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오각의 별 모양이 붕괴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녹색기사의 도끼질에 의한 가벼운 상처는 거들의 마술적인 힘에 헛되이 의지했던 이상적인 기독교도 기사 가웨인의 위상이 절대적으로 손상되었음을 의미하며, 그가 초인이 아닌 단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임을 나타낸다.

“진실성의 표상”(a token of truth; 626)인 펜탕글과는 반대로 거들은 “거짓 신념의 상징”(the badge of the false faith; 2509)으로서 “흰 콩과 대비되는 진주”(as pearls to white peas; 2364)의 이미지로 칭송을 받던 가웨인에겐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실패자인 이유는 그 자신 책망한 탐욕과 비겁함이라는 칠대 죄악(Seven Deadly Sins)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과 생존에 대한 인간적인 본능 때문이다. 녹색 거들은 중세의 여느 로맨스에 등장하는 마술의 힘을 가진 도구로 간주되어 독자와 가웨인은 그것이 지닌 불사의 힘을 믿게 되지만 녹색 거들은 문자 그대로 허리 장식으로서의 거들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녹색 거들은 초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기사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시인이 사용하는 거들이 가진 마술의 효과는, 초자연적인 힘이 아닌, 순전히 인간적인 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로맨스의 특징 중 하나인 초자연적이고 기괴한 요소는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작품 속의 본질은 될 수 없지만 사건의 원인으로서 설명된다. 『가웨인 경』에 등장하는 녹색기사, 훗데저트 성의 버실락, 녹색 거들, 녹색 사원 그리고 모간 르

페이는 초자연적이고 기괴한 요소로서 독자들에게 강렬한 판타지 로맨스에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실상은 작품 속 숨겨진 주제-가웨인의 인간적인 깨달음-를 드러내기 위한 가웨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의 결말에서 독자들은 깨닫게 된다.

더욱이 완벽한 기사로서 가웨인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리는 행동은 그가 여성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남성인 녹색기사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부끄러워했던 가웨인은 성서에 나타나는 남성영웅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요부들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화풀이 식의 비난을 늘어놓는다. 궁정식 사랑의 표상으로서 지금까지 가웨인이 보여준 여성에 대한 예의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인 것이다.

명청한 놈이 훌쩍 반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기시오
 여성의 간계에 의해서 슬피 후회하게 되리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아담이 한 여자에 의해 그러했었고,
 솔로몬은 여러 여자에게서 그러했었으며, 위대한 삼손도 마찬가지로
 데릴라가 그의 불운이었고 그 후로 다윗도
 바세바에 의해 농락당해 많은 고초를 겪었소
 이들은 그녀들의 의도에 의해 난처하게 되어졌으니
 사랑하게 되더라도 여자들을 믿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2414-2421)

해밀턴(Ruth Hamilt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웨인이 기사도를 통해 완벽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즉각적인 반응으로서의 행동은 기사도의 모범적인 가치와는 정반대의 무례한 행동이었다(115). 이 장면은 가웨인이 자신의 잘못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처음에는 가웨인이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지만 이성을 되찾은 후에 핑계거리로 여성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구약상의 많은 성인들조차도 여성의 간계와 유혹을 벗어날 수는 없었고 또한 자신은 인간으로서 그러한 유혹을 벗어날 수는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덕목 중 가장 큰 덕목인 여성에 대한 예의

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완벽한 기사 가웨인에 대한 신비의 거품이 완전히 가시게 되는 계기라 말할 수 있다.

V

『가웨인 경』의 작가는 로맨스의 주된 요소인 주인공이 겪는 물리적인 적과의 싸움을 10여행 정도로 축약하고 기사도의 모순에 따른 갈등 속에 가웨인을 위치시킴으로써, 가웨인을 살과 피를 가진 인간적인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지극한 예의와 방패에 새겨진 펜타글이 상징하는 기사도의 소유자로 여겨진 가웨인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심한 자책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독자들은 그를 한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따뜻한 공감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우리가 쉽게 동일시 할 수 있는 여느 인간의 모습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녹색기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로맨스의 주인공으로서의 아씨왕과 그의 기사들의 모습은 신비의 거품이 거두어지고 일면 풋내기로서 희화화되어진다. 반면에 가웨인이 자신의 모험을 녹색기사에 의해 제안된 단순한 게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숙명적인 기사의 맹세를 위해 길을 따나는 편력의 모습은 강직한 기사로서의 모습으로 독자에게 제시되었다. 또한 시인이 기사 가웨인과 동일시한 펜타글의 상징을 통해서, 그는 이상적인 기사도의 소유자로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의 시작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간적인 가웨인을 우리는 결말부분에서 보게 된다. 가웨인은 편력을 통하여 자신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이상적인 자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시인은 기사도적인 이상이라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가웨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완벽한 이상이란 인간이 당도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며 그 위치에 있다고 인식한 가웨인 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작품 속에 제시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가웨인을 본능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강한 생명보존의 욕구를 지닌 하나의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녹색기사의 외모는 도깨비나 요정과도 같이 초자연적인 기괴함을 나타내지만 그의 언사와 행동은 기사적인 예의를 나타낸다. 버실락은 가웨인이나 독자들이 상상하는 녹색기사의 악마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매일 아침을 미사를 올리는 신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공포와 신비의 상징이었던 녹색 사원 또한 인간의 초자연적이고 기괴한 대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장소이다. 녹색기사의 목 베기를 기다리는 가웨인에게 단순한 언덕으로 밝혀진 녹색사원은 길 안 내자가 전해준 죽음이 상존하는 악마의 공간으로도 인식된다.

결말부에서 녹색기사 자신이 밝히는 진실-버실락과의 동일화 그리고 목베기 게임과 선물교환 게임의 동기 등-은 로맨스의 초자연적인 요소가 결국은 허구임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상반된 이미지인 죽음과 삶, 악마와 신이라는 모순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녹색기사의 정체성에 대한 불가해성을 이 작품이 끝날 때 까지 지니게 된다. 녹색기사의 정체와 관련해 등장하는 모간 르 페이는 로맨스를 읽는 독자에게 악명 높은 마술사로 알려져 있지만 『가웨인 경과』에서는 피상적인 모습만을 드러낸다. 비록 녹색기사의 행동과 가웨인의 모험의 근원이 그녀로부터 발생했지만, 이러한 도구적인 역할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기괴한 마술의 힘을 지닌 인물로 독자에게 인식되어진 그녀에 대한 독자의 기대는 좌절된다. 녹색의 거들은 마술의 힘을 가진 도구로 오인되어 독자와 가웨인은 그것이 지닌 불사의 힘을 믿게 되지만 녹색의 거들은 평범한 거들로 판명날 뿐이다.

이와 같이 가웨인 시인은 초자연적이며 기괴한 전형적인 중세 로맨스적 요소를 사용하여 신비로운 환상의 기대를 독자에게 심어주는 동시에 이를 철저하게 전복시킨다. 신비로움으로 포장된 로맨스의 겉옷이 벗겨나갔을 때, 가웨인의 당혹스러움을 함께 공유하던 독자들은 그 로맨스의 중심이 바로 실제 세계였다는 점을 깨닫게 되며 초자연적인 인물과 사건들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인간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와 같은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주제어: 중세 로맨스, 회화화, 가웨인, 초자연적, 신비, 인간적

인용문헌

- Barron, W. R. J. *English Medieval Romance*. New York: Longman, 1985.
- Benson, Larry D. *Art and Tradition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Brunswick: Rutgers UP, 1965.
- Blanch, Robert J.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Overview." *Reference Guide to English Literature*. Ed. D. L. Kirkpatrick. London: St. James, 1991. 1-22.
- Bloomfield, Morton. "Episodic Motivation and Marvels in Epic and Romance." *Essay and Explorations*. Cambridge, Mass.: Harvard UP, 1970. 54-71.
- Borroff, Marie, trans.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 New Verse Translation*. New York: Norton, 1967.
- _____. "The Criticism of Style."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d. Denton Fox.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57-67.
- Burrow, J. A. *A Reading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London: Routledge, 1965.
- Busby, Keith. *Gawain in Old French Literature*. Amsterdam: Rodopi, 1980.
- Clein, Wendy. *Concepts of Chivalry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Norman: Pilgrim Books, 1987.
- Cooper, Helen. "The Supernatural." *A Companion to the Gawain-Poet*. Ed. Derek Brewer and Jonathan Gibson. Cambridge: D. S. Brewer, 1997. 277-291
- Davenport, W. A. *The Art of the Gawain-Poet*. London: Athlone, 1978.
- Everett, Dorothy. "The Alliterative Revival."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d. Denton Fox.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13-22.
- Finlayson, J. "The Expectation of Romance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Genre* 7 (1979): 1-24.

- _____. "Definition of Middle English Romance." *Middle English Romance: Authoritative Text, Source and Backgrounds Criticism*. Ed. H. A. Stephen. New York: Norton, 1995. 428-456.
- Friedman, Albert B. and Richard H. Osberg. "Gawain's Girdle as a Traditional Symbol."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90 (1977): 301-315.
- Ganim, John M. "Disorientation, Style, and Consciousness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PMLA* 91 (1976): 376-384.
- Green, Richard Hamilton, "Gawain's Shield and the Quest for Perfection." *ELH* 29 (1962): 121-39.
- Hamilton, Ruth. "Chivalry as Sin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University of Dayton Review* 18 (1987): 113-17.
- Hoffman, Elizabeth A. "A Re-hearing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ssays in Medieval Studies* 2 (1985): 66-85.
- Howard, Donald R. "Structure and Symmetry in *Sir Gawain*." *Speculum* 39 (1964): 425-433.
- Whiting, B. J. "Gawain: His Reputation, His Courtesy and His Appearance in Chaucer's *Squire's Tale*."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Sir Gawain and Green Knight*. Ed. Denton Fox.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73-78.

A Reading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s a Burlesque

Abstract

Yoon-Hee Park and Byungyong Sohn

Medieval romance is a story of adventure, love, and fantasy. Its basic paradigm is expressed in the principle—"The knight rides out alone to seek adventure." The ideal chivalrous knight grows in self-knowledge and achieves fulfillment during the quest, overcoming various hardships. Although it employs the story frame of the traditional medieval romance,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departs radically from the usual routine of medieval romances, in which supernatural and marvellous characters and incidents are everywhere. The appearance of the Green Knight and his proposal of "Beheading Game" at the beginning heighten readers' expectation of sensational story development only to be frustrated at the end, when they realize that everything is planned and there is nothing such as supernatural except the bizarre stranger.

In fact, the only mysterious figure, the Green Knight, is a kind of device used to test the valor of Arthur and his knights and to frighten Queen Guinevere. His presence in the romance is to reveal that mystique statue of great Arthur and the knights of his house is just a mirage built by many fictitious discourses. When the grotesque Green Knight breaks into Arthur's Camelot during the Christmas holidays, the idealistic image of true knighthood of the Round Table completely shattered—Arthur and his knights are proved to be "boyish" and "beardless" children. Chivalrous renown of Gawain as a perfect knight is also greatly hurt by his love of his own life. Even Gawain, an incarnation of knighthood, is just a human being with flesh and blood. The

whole episodes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fter all, disclose that human errors were to blame for the shameful deeds of the great heroes. And in this disclosure, a burlesque of romance can be germinated.

Key Words

medieval romance, burlesque, Sir Gawain, supernatural, mystery, human